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의 정치성*

– 김지하의 『오적』과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를
대상으로

김난희**

【 차 례 】

I. 서론

II. 본론

1.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정치성의 조우
2. 현실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집단적 저항의 정동성;
김지하의 『오적』
 - 1) ‘격하’의 욕망과 카니발 이미지
 - 2) 민중의 신성성 구현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
3. 환상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젠더 생성의 수행성;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 1) 젠더 경계 허물기로서의 비체(aject)이미지
 - 2) 새로운 젠더 생성으로서의 미스핏 (misfit)이미지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지닌 정치성을 방법론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정치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같은 목적은 그동안 한국 현대시사(詩史)에서 주기적으로 거론돼왔던 시의 정치성과 관련하여 담론은 무성했지만 그 담론을 뒷받침해줄 구체적 실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4443)

** 제1저자, 순천향대학교 기초공통교양학부 강사, ranikimhee@hanmail.net

출발한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전제로 삼고자 하는 ‘상상적 신체’란 이미지 작용의 축적은 단순한 감각지로부터 구분되는 경험지를 가져다주며 이것은 사물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스피노자의 상상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성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이미지, 상징, 비유, 재현을 가리키는 의미로까지 전화(轉化)된 ‘상상’개념, 신체란 문화가 스스로 조직하고, 조절하고 개조하는 방식의 산물이라는 푸코의 신체 개념이 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상적 신체 이미지 개념을 바탕으로 김지하 답시집인 『오적』과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의 정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지하의 답시집에 나타난 현실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당대 민중들의 저항성을 견인해낸 집단적 정동 정치의 효과적 전략으로, 김민정의 시집에 드러나는 환상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기존의 젠더 관념에 대한 경계 허물기와 새로운 젠더 생성의 수행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열쇠어 : 시의 정치성, 상상적 신체 이미지, 김지하, 김민정, 카니발적 몸, 그로테스크 몸, 비체, 미스핏 이미지, 집단적 저항성, 새로운 젠더 수행성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지닌 정치성을 방법론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정치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같은 목적은 그동안 한국 현대 시사(詩史)에서 주기적으로 거론돼왔던 시의 정치성과 관련하여 답론은 무성했지만 그 답론을 뒷받침해줄 구체적 실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시의 정치성(문학의 정치, 혹은 문학과 정치)과 관련된 무수한 답론들이 서로 충돌과 융합, 분화 및 진화의 양상으로 논의돼온 와중¹⁾에서 현대시는

1) 한국 현대 시사에서 논의된 시와 정치의 역사는 근대문학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지만, 현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의 정치성(문학의 정치성, 혹은 문학과 정치) 관련 논의는 2008년에 발표된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로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진은영의 글을 2000년대의 시점에서 1980년대 시의 정치성을 참조하면서 새로운 정치성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얼굴을 드러냈지만, 그 정치성을 읽어내고 마땅한 이름을 붙일만한 구체적인 방법론 모색은 빈약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에서의 정치성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인간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함의하는 정치성에 착안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에서 정치성을 논할 때, 시가 시대적 상황 및 당대의 담론과 별개로

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 논의로부터 참조할 수 있는 시와 정치의 참조 대상은 1980년대 문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물론, 1980년대 문학에서의 정치성 논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순수/참여 문학 논쟁을 소환할 수밖에 없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초반의 시민문학론 논의도 빠질 수 없겠지만, 2000년대 시와 정치 논의의 가장 직접적인 참조점이 되었던 1970~80년대의 민중문학, 노동계급문학으로부터 최근까지의 시의 정치(문학의 정치)와 관련된 논의 과정을 거칠게 분류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시대적인 정치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던 1980년대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의 급속한 진행과 때 이른 쇠퇴, 이에 따라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을 시대적 부산물로 서둘러 매듭짓고자 했던 논의(1990년대 문학의 특성을 논하는 자리는 1980년대 문학의 한계를 논하는 자리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구모룡의 「새로운 연대의 문학과 새로움의 징후들」(『신생의 문학』, 전망, 1994), 김경복의 「1980년대 문학에 대한 비판; 90년대 한국 현대시의 탈정치성과 신서정성」(『한국문학논총』 제 49집, 2008)등의 논의를 위시하여 민중문학의 종언을 고한 조정환의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갈무리, 2007)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를 들 수 있다. 이어서 2000년대 초 ‘미래파’출현 이후 미학과 정치성을 함께 문제 삼은 진은영의 ‘시의 정치’논의는 서로 간의 차이는 있으나 문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문학과 정치의 관점을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예를 들어 강계숙의 「시의 정치성을 말할 때 물어야 할 것들」(『문학과사회』, 2009년 가을호), 서동욱의 「시와 비진리」(『세계의 문학』, 2009년 여름호), 이상욱의 「2000년대 후반의 ‘시와 정치’논쟁과 근대적 문학 관념의 아포리아」(『어문논총』 제7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등을 들 수 있다.)과 현실의 정치와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면서 새로운 ‘다른 정치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이광호의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문학과지성사, 2006), 백지은의 「“문학과 정치”담론의 행방과 향방」(『비평문학』 36호, 2010) 등을 들 수 있다.)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와 문학의 정치를 대입하여 정치성을 논하고자 하는 입장(함돈균의 「사회의 불가능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문학」(『비교한국학』 Vol.25, No.2, 2017), 정의진의 「문학의 역사성, 특수성, 정치성- 민주주의와 문학에 대한 비교연구시론 2」(『한국학 연구』 제48집, 2018)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문학과 정치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학의 정치가 오히려 문학의 규범으로 제도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황정아, 「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2021년 겨울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인간의 신체(몸)란 문화와 시대가 스스로 조절하고, 개조하는 산물이라는 점,²⁾ 그리고 신체와 세계는 상호 얽혀있고, 상호 교차하며, 상호 잠식하고 상호 분리하는 개방적, 변증법적 관계라는 점³⁾ 등을 고려할 때 신체는 시(문학)의 정치성 논의에 있어 주요한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우리가 현대 시사(詩史) 속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논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문학의 자율성과 현실 반영성과의 이분법적 구도와 무관하게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체에 작용하고 신체를 통해 수행되는 정교하고도 만연한 실천들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⁴⁾이라는 점을 복기한다면, 신체야말로 문학에서의 거대담론이든, 미시적 일상담론이든 가장 밀착된 지점에서 정치성 논의가 가능한 거처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정치성을 둘러싼 기존의 문학사적인 구획을 떠나 1980년대 민중문학을 대표했던 김지하의 답시집인 『오적』(동광출판사, 1983)⁵⁾과 2000년대 초반 ‘미래파’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열림원, 2005)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에서 정치성 구현의 방법론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김지하의 『오적』은 1980년대 민중문학의 한복판에서 발표된 시집이기에 별도로 ‘정치성’이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을 만큼 직접적인 정치적 색채가 짙지만, 엄밀히 말해 이때 언급되었던 ‘정치성’은 시대적인 것, 주제적이고 소재적인 차원의 것이지, 방법론적

2) 이소희, 「메틀로 폰티와 푸코의 신체론 비교- 선형적 주체와 자연주의적 신체를 넘어서-」, 『철학연구』제37, 고려대학교철학연구소, 2007, 131쪽.

3) 류의근, 「몸의 정치」, 『철학연구』126, 대한철학회, 2013, 60쪽.

4) 이소희, 앞의 논문, 137쪽.

5) 김지하의 답시 전집 『오적』은 1983년 동광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으나, 이후 1988년에 출간된 『이 가문 날에 비구름』이라는 답시집을 더하여 솔 출판사에서 1993년, 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오적』을 새롭게 출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솔 출판사에서 1993년에 출간한 『오적』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김지하가 『오적』을 쓸 때 내세웠던 민중 문학론은 방법론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론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는 드물다.⁶⁾ 김지하가 자신의 민중 문학론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주장했던 것은 민중의 육체적 언어였다. 이를 위해서 김지하가 동사나 명사보다는 형용사, 부사 등의 언어를 통해 감금 언어나 냉동 언어를 해체해야 하며, 민중적 언어를 가장 잘 살리는 감각 또한 시각이 아니라 촉각임을 내세웠던 것⁷⁾을 생각해본다면, 김지하는 인간의 몸, 즉 신체와 가장 밀접한 시론을 내세워서 답시를 창작했고, 답시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는 당대 민중들의 집단적 저항을 드러내는 시적 전략으로 기능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이십여 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는 ‘새로운 서정’이나 ‘뉴웨이브’, ‘미래파’ 등의 명칭을 통해 2000년대의 새로운 감각을 전위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되곤 했지만, 이 시집에서 일군의 평론가들은 환상적 몸이 갖는 새로운 정치성을 읽어내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 미래파 시의 형식적 실험이 물고 온 파고 탓에 김민정의 시가 갖는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 되지는 못했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정치성”,⁸⁾ “현실을 드러내는 훨씬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다른 길은 없겠는가”의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인⁹⁾ 시집이라는 평가

6) 김지하의 답시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작품이나 후기의 작품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그나마 답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답시의 장르적 속성, 판소리와 양식적 유사점에 주목한 것이 많고(오세영의 「장르실험과 전통장르」(『작가 세계』, 1989년 가을호), 이승원의 「해방 후 서사시, 장시의 정신과 형식」(『현대시』, 1993년 10월), 이승하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풍자성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5), 고현철의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이론」(태학사, 1997) 등을 들 수 있다.), 답시의 언어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는 임동환의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서강대학교 박사 논문, 2003)과 김난희의 「한국 민중시의 언어적 실천」(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10)등을 들 수 있다. 임동환과 김난희의 연구는 답시에서 볼 수 있는 언어와 신체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과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7) 김지하, 「민중문학의 형식 문제」,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92, 292~294쪽 참고.

8) 김영희, 김영찬 외 좌담, 「우리 문학의 현장에서 진로를 묻다」,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196쪽.

9) 조강석, 「2000년대의 한국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시대의 시적 징후와 상처』,

는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가 감각의 차원에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이 시집에 나타난 환상적 몸의 감각이란 것도 현실을 전제로 한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치성의 단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단조는 최근 들어 이 시집에 대한 젠더적 정치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페미니즘 입장과 접속되면서 현대시에서 정치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논의로 대두되기도 하였다.¹⁰⁾ 본고에서 살펴볼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김민정의 시집에서 새로운 젠더 정치성을 읽어내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이러한 정치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정치성의 조우

본고의 목적은 시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시에서의 정치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즉 시에서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갖는 정치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고 했다. 이때 ‘상상적 신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고

여름언덕, 2005, 58쪽.

- 10) 지금까지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서정’, ‘뉴웨이브’, ‘낯은 감각의 갱신’ 등의 용어와 함께 ‘미래파’로 분류된 가운데 주로 시적 언어와 미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한 축을 이루었다면(권혁웅의 『미래파』(문학과지성사, 2005), 이장욱의 『나의 우울한 모던 보이』(창비, 2015), 박현수의 『포스트 아방가르드의 문법-잔혹시』(『현대시학』, 2005, 1), 박형준의 『환상과 실재』(『창작과비평』, 2005년 가을호), 신형철의 『문제는 서정이 아니다—웰컴, 뉴웨이브 포-에티카』(『문학동네』, 2005년 가을호) 등을 들 수 있다.), 페미니즘과 젠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나머지 한 축을 이루고 있다.(이 계열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강석주의 『2000년대 한국 여성시인으로서의 김민정 읽기』(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이영희의 『김민정 시에 나타난 수행적 정체성 연구』(『동아인문학』 제40집, 동아인문학회, 2017), 양경연의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문학동네』, 2017년 여름호), 조연정의 『2000년대 한국시의 ‘여자-아이’들』(『여성문학연구』 53집, 한국여성문학회, 2021) 등이 있다.)

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상상적’이란 개념은 단순히 주관적 상상이나 환상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주체성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이미지, 상징, 비유, 재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모이라 게이튼스(Moire Gatens)의 『상상적 신체』(조꽃씨 역, 도서출판 b, 2021)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 책에서 모이라 게이튼스는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사회체를 이해하며, 그러한 사회체는 이미지와 상징의 가치와 지위, 또 그것들에 대한 적합한 취급을 규정하므로 ‘상상’은 역사적이고 구성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¹¹⁾ 그녀는 이러한 상상 개념에 스피노자의 신체관을 더하여 ‘상상적 신체’개념을 창안하면서 이로부터 ‘상상’ 혹은 ‘상상계’가 지닐 수 있는 정치성에 주목한다. 그녀는 정치적 차원에서 상상(상상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서 및 타자들을 변용할 수 있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¹²⁾ 이 점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언급한 ‘상상지(想像知)’¹³⁾가 갖는 특성을 자신의 페미니즘 정치성으로 전유하는 데서 비롯한 것인데, 그녀는 무엇보다 상상 차원의 인식은 지성 차원의 인식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체의 차원으로 남는다는 스피노자의 상상에 대한 입장에 주목하여 상상이 갖는 정치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였던 모이라 게이튼스가 스피노자의 상상지 개념을 전유하

11) 모이라 게이튼스, 『상상적 신체』, 조꽃씨 역, 도서출판 b, 2021, 23쪽.

12) 위의 책, 23쪽.

13) 스피노자는 인간의 인식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본다. 제 1종의 인식으로는 이미지 차원의 인식으로서 상상지(想像知)가 있고, 제 2종의 인식으로는 지성에 의한 인식인 이성지(理性知)가 있으며, 제 3종의 인식으로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직관지(直觀知)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제 1종의 인식에 해당하는 상상지는 일종의 ‘이미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일차적으로 이미지 차원의 지각을 줄 뿐인데, 이 이미지 차원에서만 살아간다면, 인간은 사물의 실체나 인과를 잘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지 작용의 축적은 단순한 감각지로부터 구분되는 경험지를 가져다 주며 이것은 사물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스피노자는 상상지의 긍정성을 인정한다. (이정우, 『세계철학사 3』, 길, 2021, 203쪽)

여 ‘상상적 신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계기는 무엇보다 신체, 곧 몸에 관한 인식이 성적인 차별을 낳았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출발점은 근대 이성중심주의 체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으로부터 비롯된 근대 이성 철학은 여성적 영역(신체적, 자연적)과 남성적 영역(이성적, 문화적)을 분할함으로써 정신 대 신체, 자연 대 문화라는 이원적 존재론을 낳았고, 이는 곧 성차에 근거한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즉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입각한 근대 이후의 철학이 바로 그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양극성을 유지, 강화해왔음을 주장한 것이다.¹⁴⁾ 게이튼스의 이같은 주장은 정신 대 신체라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적 신체관에 반대하고 정신과 신체의 동시성을 내세운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신체관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체에 작용하고 신체를 통해 수행되는 실천들을 통해 구성된다는 푸코의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신체관과도 연동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의 전제로 삼고자 하는 ‘상상적 신체’란 상상 작용이 단순한 감각지로부터 구분되는 경험지를 가져다주며 이것은 사물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스피노자의 상상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성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상징, 비유, 재현을 가리키는 의미로까지 전화(轉化)된 ‘상상’개념과 푸코적 신체 개념이 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적 신체’개념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이미지가 갖는 사회적(정치적) 속성과 결합하여 본고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라는 것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를 갖는다¹⁵⁾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지가 갖는 사회적 성격, 역사적 성격은 사회적 구성물이나 문화적 산물로서의

14) 모이라 게이튼스, 앞의 책, 122쪽.

15) 하상복, 『이미지·상징·재현, 운동의 얼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x xii쪽.

‘상상적 신체’ 개념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지 자체를 사회적 삶 자체로 보면서 이미지는 세대나 시대 속에서 집단적으로 동시 현존하며, 인간은 ‘세계상’(world picture)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이미지 형성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W.J.T.미첼의 주장¹⁶⁾에 의하면 이미지야말로 사회와의 접촉을 기본 목적으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재현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가치와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 체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생성을 거듭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상상적 신체’와 ‘이미지’의 결합으로서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사회성과 정치성의 의미 생성 기제로 작동 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모이라 게이튼스가 상상적 신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용했던 스피노자의 다음과 같은 입장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정치성과 연동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상이란 인간 신체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관념이다.(.....)예컨대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우리는 태양이 우리로부터 약 200 피트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태양의 참된 거리를 알지 못하는 한에서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거리가 알려질 때 오류는 제거되어도 상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상은) 참된 것과 상반되지 않으며, 참된 것의 현존에 의해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¹⁸⁾

이 말은 태양 그 자체와 나의 현재 신체 상태를 변용하는 것으로서의 태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인간이 그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상적 관계를 상쇄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모이라 게이튼스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일치하는 경우,

16) W.J.T.미첼, 김진유경 역,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린비, 2010, 6쪽.

17)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과 정치학(2)」, 『국제어문』 76집, 국제어문학회, 2018, 285쪽.

18) B. 스피노자, 황태연 역, 『에티카』, 비홍출판사, 2015, 238쪽.

상상은 사람들 사이에 동맹을 맺게 해준다는 점, 신체들을 성별화하고 함께 짓는 기존의 상상계를 넘어서는 때 다양성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갖는 정치성을 역설했던 것이다.¹⁹⁾ 이 점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가 지닌 일련의 사회적 맥락을 통해 현대시에서 시의 정치성을 살펴보겠다는 본고의 방법론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현실의 정치적 억압에 맞서 서로 동맹을 맺게 해주는 기제로서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김지하)와 신체들을 성별화 하고 함께 짓는 기존의 상상계를 허물고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제로서의 환상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김민정)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시에서 정치성 구현의 한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실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집단적 저항의 정동성:

김지하의 『오적』

1) ‘격하’의 욕망과 카니발 이미지

김지하의 담시(譚詩) 모음집인 『오적』은 담시로 치자면 그의 첫 작품인 「오적」을 비롯하여 8편의 담시가 실려 있는 시집이다. 김지하가 기존의 서정시 형식을 벗어나 담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소시민적, 지식인적 시적 주체를 버리고 민중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와 형식이 필요하며, 개인적 주체를 포함한 집단적 주체를 위한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²⁰⁾ 담시(이야기 시) 같은 이야기 구조가 1970년대 민중의식의 성장이나 확대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담시는 기승전결의 서사성을 바탕으로 짜여진 시적 구성을 지닌다. 이야기 형식으로 짜여진 김지하의 담시는 당대의

19) 모이라 게이튼스, 앞의 책, 272~274쪽 참조.

20) 김지하, 『五賊』, 동광출판사, 1983. 9~10쪽 참조.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진술하면서 주체의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간 중간 삽입된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전언과 진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본원적으로 당대의 정치 현실을 드러내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상상적 신체 이미지들은 아상블랑주적인 방법으로 배치되어 기괴하고 낯선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오적」에서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전언과 진술을 가로질러 집단적 정동에 호소함으로써 기존의 정치 체제에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상상적 동맹’으로 기능한다.

첫째 도둑 나온다 狲狲이란 놈 나온다

돈으로 옷해 입고 돈으로 모자해 쓰고 돈으로 구두해 신고 돈으로 장갑해 끼고

금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단추, 금넥타이 핀, 금카후스보턴, 금박클, 금니빨, 금손톱, 금발

톱, 금작크, 금세계줄.

디룩디룩 방대이, 불룩불룩 아랫배, 방귀를 뽕뽕뀌며 아그작 아그작 나온다
저놈 재조 봐라 저 재벌 놈 재조 봐라

장관은 노랑게 굵고 차관은 별겉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계사치고 고추장치고 미원까지 툭툭쳐서 실고추파 마늘
곁들여 날름

세금받은 은행돈, 외국서 빚낸 돈, 원갓 특혜 좋은 이권은 모조리 꿀꺽
이쁜년 피어서 첩삼아 밤낮으로 직신작신 새끼끼기 여념없다

(중략)

포도대장 물러신다 포도대장 거동봐라

울둑불둑 돼지코에 술찌꺼기 허어영게 묻은 메기 주둥이, 침은 질질질
장비사돈네 팔촌 같은 텃석부리 수염, 사람여럿 잡아먹어 피가 벌건 왕방
울 눈깔

마뺏에 주먹 흑이 뿔때마다 털렁털렁

열십자 팔벌리고 멧돌같이 좌충우돌, 사자같이 으르르릉

이놈 내리훑고 저놈 굴비 엮어
 종삼 명동 양동 무교동 청계천 쉬파리 답십리 왕파리 모두 쓸어모아다
 끌리고
 치고 패고 차고 밟고
 꼬집어 뜯고 물어뜯고 엮어메치고 뒤집어던지고 쏘아추스리고 걷어팽개
 치고
 때리고 부수고 개키고 까집고 비틀고 조이고
 직신작신 조지고 지지고 노들강변 버들같이 휘휘 낭낭 꾸부러드리고
 육모방망이, 세모숫장, 갈퀴리, 긴칼, 짧은 칼, 큰칼, 작은 칼
 오라 수갑 곤장 난장 곤봉 호각개다리 소다리 장총 기관총 수류탄 최루
 탄 발연탄 구토탄 똥
 탄 오줌탄 똥물탄 석탄 백탄
 모조리 늘어놓고 어흥-

「五賊」 중에서

당대 부정한 관리들의 부패상을 고발한 시로 널리 알려진 위의 시에는
 오적(五賊) 중 가장 으뜸인 재벌과 그 오적을 잡는답시고 오적의 무리들
 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포도대장의 신체 이미지가 제시된다. 재벌의 부
 유한 모습과 포도대장의 권위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신체 이미지는
 “디룩디룩”. “불룩불룩”, “털렁털렁”, “아그작 아그작”등의 의태어를 동
 원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를 최대한 드러낸다. 또한 “까집고”,
 “비틀고”, “꼬집어 뜯고” 등의 촉각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을 요한
 다. 촉각은 감각 작용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신체와
 영혼들의 정념들이 전개되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와 대상의 결속을 조준
 하는 감각이다.²¹⁾ 따라서 「오적」에 나타난 촉각적 이미지는 시적 주체가
 대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여

21)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6, 319쪽.

시적 주체와 독자 간의 결속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물의 물질성에 가장 밀착해있는 기호임²²⁾을 감안한다면, 의태어와 의성어를 동원하여 묘사된 부정한 관리들의 신체 이미지는 재벌의 부정행위와 포도대장의 무자비한 가혹행위라는 지시적 전언을 가로질러 일종의 육체적 정동을 불러오는 기제가 된다.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지배층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공식적, 형식적, 논리적 권위주의에 맞선 육체, 성애, 외설의 폭발적인 난장이라는 카니발적 문화 양식²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니발적 몸’과 연결된다. ‘카니발적 몸’은 카니발의 주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격하’(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추상적인 모든 것을 물질적, 육체적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데,²⁴⁾ 이는 기성 체제에 대한 저항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파괴와 전복의 정치성을 함의한다. 「오적」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카니발적 신체 이미지는 지배층의 억압과 부패를 당대 독자의 상상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지배층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욕망에 집단적인 정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으로 기능한다. 이같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금지하가 몸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 ‘민중적 언어의 거대한 육체성’, ‘민중적 에너지의 고양된 충족’을 드러내는 형식적 장치로서도 당시의 형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²⁵⁾ 신체와 관련한 여러 감각적인 언어(의성어, 의태어 등)를 더하여 민중의 ‘격하’욕망을 최대한 끌어올린 정치성을 지닌다.

22) 김성도, 위의 책, 319쪽.

23) 테리 이글턴,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 또는 혁명적 비평을 향하여』, 이앤비플러스, 2012, 258쪽.

24) 박건용,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문학의 카니발화」, 『독어교육』31,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285쪽.

25) 김지하, 「민중문학의 형식 문제」,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92, 294쪽.

2) 민중의 신성성 구현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

김지하의 답시집 『오적』에 실린 시편들은 대략 세 부류(억압받는 민중들의 생활을 그린 시편,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 다루고 있는 시편, 역사적인 사건(동학)을 통한 민중들의 숭고한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시편 등)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중 카니발적 신체 이미지를 통해 ‘격하’에의 욕망을 보여준 시편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부류(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민중들의 숭고한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시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답시는 「이 가문 날에 비구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카니발적 신체 이미지가 지배층의 부정과 부패를 각인시키는 상상적 차원과 연루된 이미지였다면 「이 가문 날에 비구름」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저항적인 민중들의 모습을 신성성(神聖性)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의미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카니발적 ‘격하’가 지배층의 전복을 겨냥한 욕망을 끌어내는 상상적 신체 이미지였다면, 민중들의 수난당하는 모습의 신성화된 이미지는 세속적 삶에서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부패한 지배층과는 다른 민중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민중들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한 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바흐친의 이론에서 보자면, ‘그로테스크 몸’은 단순한 개인적인 몸 이상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다.²⁶⁾ 따라서 ‘그로테스크 몸’은 사회구성체의 허구적 기반을 폭로하는 카니발의 몸과 동일한 정치적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그로테스크 몸’은 육체를 복수화(複數化) 하거나, 카텍시스화함으로써, 육체의 단일성을 무수히 많은 부분들로 분해하고, 육체의

26) ‘그로테스크’ 개념 자체에 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지만, 본고에서 참고한 ‘그로테스크의 몸’은 바흐친이 그의 저서 『라블레론』에서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의 거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육체성을 서술하면서 언급한 개념이다. 이때의 ‘그로테스크의 몸’은 민중과 민중문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일종의 ‘민중의 집단적 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몸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미라, 「미하일 바흐친의 라블레론 다시 읽기」, 『한국노어노문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집』, 2015, 62~64쪽 참고.)

제약을 끊임없이 위반하여 개별적인 육체나, 집단적인 육체를 당대의 사회적 현실 앞에 열어젖힘으로써 사회문화적, 정치적 몸으로 드러난다.²⁷⁾

1)

푸우

푸푸푸푸푸

망나니가 입에 문 물을 푸푸푸

내뿜고 칼을 높이 쳐들어 탁

쳐도 목이 그대로 말짱

푸우

푸푸푸푸푸푸푸푸푸

망나니가 물 내뿜고 칼을 높이 쳐들어 다시 탁

쳐도 목은 여전히 말짱

「아이쿠 이분이 神人이 틀림없다!」

덜덜 덜덜덜

망나니 칼이 덜덜 떨어져 몸이 후들후들 떨어져 식은땀이 주루루루루

『너 이놈 뭘 꾸물대느냐 어서 쳐라!』

(중략)

『아이쿠 안되겠습니다.』

『이놈아, 안되면 통나무 썰듯 톱으로 썰어라 썰어!』

『아이쿠 썰어도 안되겠습니다.』

『이놈아 안되면 장작 찌듯 찌어라 찌어!』

『아이쿠 찌어도 안되겠습니다.』

이때에 수운 선생

겉이 나 두 눈 뒤집혀 덜덜 떨어대는 망나니가 측은해 다시 눈 감고 긴

묵념 끝에

『이제 잘 떨어질 테니 안심하고 베어라!』

이말 듣고 푸우

27) 테리 이글턴, 앞의 책, 349쪽.

푸푸푸

다시 물 뿜어 칼을 탁 치니

그제서야 포그르르르 목이 떨어지며 목구멍에서 꼬로록—

소리 한번 나고 잠잠한가 싶더니

망나니와 나졸, 포졸, 선전관이 머리를 확인하러 가까이 가자

난데없이 뇌성벽력 치듯 고향 소리가 목 없는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다

「이 가문 날에 비구름」 중에서

2)

칼노래를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수수천만이 함께 부르듯 왕왕 터지며
수운 목구멍에서 원갓 증생 갓은 바닥쌍것들이 수도 없이 꾸역꾸역 기어
나오는데

팔도 농투산이란 농투산이는 다 기어나와

(중략)

백정이며, 사당이며 판다라, 기생, 화심이, 영자, 춘자, 때밀이, 안마쟁이,
니나노, 공순이,

공돌이, 뽀돌이, 식순이, 호순이, 화적떼, 비렁뱅이, 머슴, 시라이, 양아치,
작두날림, 중놈 중년들이 와크르르 쏟아져 나와

『사람 섬기기를 한올같이 하렷다! 네 이놈들 우리가 네놈들 섬기는 것 좀
보아라!』

소 잡는 토끼, 사당패 물미장, 가야금, 장구통, 뿔 방망이, 작대기, 부지깽
이로 우당탕 쿵쿵 땅 따당 탕 통 쿵 땡 뚱 띠딩 온갓 잡그릇 박살나 와삭
와삭 바삭바삭 쟁그랑 짱 팡 뚱 땡

왈자패 주먹, 각다귀패 뒷발질, 들병장수 술병, 도봇장수 담뱃대, 뽕쟁이
꼴통, 용접쟁이 싹싹싹,

「이 가문 날에 비구름」 중에서

1) 에서는 수운 최제우가 동학 포교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2)에서는 망나니가 수운의 말에 따라 어렵사리 최제우의 목을 베자 그의 목구멍에서 온갖 민중들이 뛰어나와 한 무더기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기이한 모습이 나타난다. 칼이나 톱으로도 결코 벨 수 없었던 수운의 목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망나니를 측은하게 여긴 수운이 “이제 잘 떨어질 테니 안심하고 베어라!”고 하자 비로소 땅으로 떨어져 내린 수운의 목이나, 그 떨어진 목구멍에서 “원갓 중생 갓은 바 닥쌍것들이 수도 없이 꾸역꾸역”기어 나오는 모습은 그로테스크 신체 이미지 그 자체다. 수운과 온갓 중생들의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는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렷다! 네 이놈들 우리가 네놈들 섬기는 것 좀 보아라!”라는 민중들의 함성과 어울리면서 당대 지배층이 동학혁명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공포를 폭로하는 동시에 그와는 대비되는 수운과 민중들의 신성성(神聖性)을 제시한다.

사람이(민중이) 곧 하늘이라는 당대의 동학 이념은 봉건적 계급사회에서는 일종의 금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와 배척을 내세운 관리들의 허구성은 수운의 목이 잘리는 과정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수운의 목구멍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온갓 중생들의 기괴한 모습은 억압받는 피지배계층의 해방에 대한 충동을 부추긴다. 따라서 수운과 온갓 중생들의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는 지배층이 금기시한 지배적 가치를 전복시킴으로써 그 지배적인 가치를 뛰어 넘는 일종의 ‘신성성’을 제시한다. 신성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금지된 것이지만, 금지된 신성은 그것을 배척하는 속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신성한 삶은 속세적 삶이 원치 않는 힘에 호소하기 때문에 세속적 삶 속에서 일종의 해방을 불러온다.²⁸⁾ 여기서 제시된 민중들의 그로테스크한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동학혁명 당시의 부정한 관리들과는 대조적인 민중들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민중들이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정치성을 담보

28)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살림, 2006, 153쪽.

한다. 사물의 표상을 “인간 신체의 변용 그 자체, 즉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원인들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고, 이 또는 저 행동에 결정되는 방식”²⁹⁾이라고 보았던 스피노자의 심상 이론에 따르자면, 김지하의 답시에 표상된 그로테스크한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타자들을 변용할 수 있는 방법 모두를 변경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정치적 차원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상적 신체 이미지를 통해 김지하의 답시는 1960년대의 소시민적, 지식인적 주체에서 벗어나 민중적 주체를 탄생시켰으며, 민중문학이라는 상상적 동맹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3. 환상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와 젠더 생성의 수행성: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1) 젠더 경계 허물기로서의 비체(bject)이미지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는 각양각색 인물 군의 신체 이미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신체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이들의 몸 이미지는 대체로 분할과 합체, 파편화 및 형해화 등의 환상적 양상을 띤다 (‘뼈를 발라 석쇠에 구워 먹기’(「내가 날 잘라 굽고 있는 밤풍경」), ‘내 양 팔다리를 우걱우걱 씹기’(「나의 ‘완전한’ 나를 찾아서」), ‘구멍난 혀를 면도칼로 찔라 신주머니에 넣으며’(「엄마,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등). 이 시집이 발표되었던 당시(2005년), 이러한 신체 이미지는 1997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기존 질서의 위기에 봉착한 새로운 세대들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저항성으로 읽을 수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는 당대의 사회적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평가들로,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상상력’차원에서 주로 언급된 것이었다.³⁰⁾ 이 입장들을 놓고 보자면, 김

29) B. 스피노자, 앞의 책, 190쪽.

민정의 시집에 나타난 훼손되고 파편화된 환상적 신체 이미지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엠블럼(emblem) 차원에서 정치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최근 들어 이 시집에서 젠더 정치성을 새롭게 부각시켜 가며 읽어내는 논의들과 관련하여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의 정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³¹⁾

1)

일찍이 그녀는 누에고치처럼 순결한 껍데기를 원했다
그러나 순결한 껍데기는 언제나 순결한 속살을 원했다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낼 수 있다니까* 그녀는 쇠스랑을 가져다 양 가슴뼈를 긁어낸 뒤 연하고 말랑말랑한 가슴살을 한줌 떼어냈다 그리고는 늑골에 고여 있던 피를 한 바가지 떠서 쪽죽 찢어놓은 가슴살을 푹 적셨다. *애들아 이리 와서 이 선선한 피고를 냉채 좀 맛보렴* 구경하던 소년들이 깔깔거리며 오동나무를 뭉쳐 만든 실로폰 채로 그녀의 머리통을 톱톱 두들겼다 *이 미친년아, 네 피는 까만색이야 격리대상 1호라고 아냐 아냐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낼 수 있다니까*

(중략)

낮익은 사물들이 하나둘씩 잡아먹히고 있구나.....발음하는 내 입술 사이로 벅찬 웃음을 웃느라 빠드러지게 양다문 이빨이 벅찬 울음을 울고 있다

-
- 30) 이러한 입장에서 2000년대 초의 문학적 특성을 논의한 것으로는 황종연의 「매맞는 아이들의 정치적 상상력」(『문학동네』, 2007년 가을호), 김영찬의 「비루한 동물 극장」(『문학동네』, 2005년 가을호), 김형중·심보선의 「실재에의 열정에 대한 열정; 미래 파의 시와 시학」(『문화와 사회』 제4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8) 등을 들 수 있다.
- 31) 이 시집과 관련한 젠더 정치성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여성주의 문학의 실종’이라는 문학사적 평가로부터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등장한 재독해의 결과물(강석주, 이영희, 양정언, 조연정 등의 논의)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시집의 신체 이미지가 젠더 규범 허물기와 젠더 생성의 정치적 기제의 근거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략)

나는 아주 유연한 허리로 45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로 발딱발딱 발기한
채 그대 쪽으로 광합성하기 시작한다 석회가루를 잔뜩 묻
힌 다디단 그대의 뺨이 직각으로 누워 나를 잡아당기는
또 다른 나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다 이제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한다 그리고 환호한다 와우, 애들아
이것 좀 봐 드디어 내 푸른 제2의 자아가 내 몸 위에 달
균 피자처럼 엉겨 붙고 있어

「완전한 격리」 중에서

2)

(.....) 내 음부가 철철 피흘렸다. 달콤 씹새래한 시럽, 붉은 고 좇농에
젖어 살빛 카스텔라는 곰팡 난 메트리스로 폭 번져가는데
그 위로 빼적 빼적 소리를 내며 꿈틀, 꿈틀거리는 이봐요
고등어 부인씨..... 그녀는 한창 자위 중이었다.

대지의 손을 빌려 뜨거운 혀와 같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그녀의 속속곳 속곳 속에 물살을 일으키는 그녀,

(중략)

너 하고 싶지?

네? 에이 하고 싶으면서 뭘. 아노, 나는 아냐, 순간 나는
하이힐을 벗어 그녀의 양쪽 뺨을 후려찍고 말았다. 거짓말!
분명 넌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씨발, 아니, 아니라잖아. 참
다 못한 그녀의 알주머니를 싹둑싹둑 가위질하자 김
말이 속 당면처럼 빼곡히 들어찬 그녀들이 잘린 입 밖으
로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이봐 고등어 부인씨, 난 단지
갑갑증이 나서 살짝 따고플 뿐이라고!

나는 브래지어를 벗어던졌다. 나는 팬티도 벗어던졌다.

나는 콘택트렌즈와 치아교정기에 인조 속눈썹까지 자꾸
만 벗고 또 벗어 던졌다. 곤약같이 껌질 벗긴 흰 살점 덩어
리, 이마저도 체증이 일어 펄펄 끓는 기름 솥단지 안
으로 다이빙해 들어갔다
(하락)

「고등어 부인의 링크」 중에서

이 두 시편은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의 주요 기제는 다름 아닌 ‘비체abject’이다. ‘비체’란 유아가 나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개발하려고 타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몰아내는 과정인 비체화(abjection)³²⁾에서 유아가 혐오하고 거부하여 거의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오염물(타액, 피, 오줌, 시체, 배설물 등)을 가리킨다. 이때 유아는 비체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다른’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배제하고 추방함으로써 주체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구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경계를 설정한 뒤, 반사회적인 요소를 배제하거나 추방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확립한다. 비체와 비체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이러한 이론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상징적 질서가 분리와 배제의 논리, 경계 설정에 따른 동일화의 매커니즘에 의

32)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유아가 어머니 및 환경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비체화(abjection)’의 과정으로 기술한다. 유아는 자신의 깨끗하고 적절한 자아의 일부가 아닌 것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추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아는 발달 과정의 거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전에 분리된 ‘나’의 감각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이가 추방한 것은 단 한 번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추방된 것들은 주체의 의식에 끊임없이 출몰하고 의식 주변에 남아있다. 주체는 이 추방된 것에서 혐오와 매혹을 동시에 느끼고, 그래서 그의 자아 경계들은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동시에 유지된다. 자아 경계는 추방된 것이 그 경계를 무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혹적이기 때문에 위협받으며, 그러한 붕괴의 두려움이 주체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유지된다.(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엘피, 2007, 98~99쪽)

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크리스테바는 비체의 명확한 설정은 불가능하며 비록 경계에서 배제되고 억압도 받지만, 비체는 결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늘 회귀하면서 그 사회의 정체성을 동요시키고 교란시키는 기제가 되며, 그를 통해 사회의 정치, 도덕, 종교, 언어의 권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권위의 베일은 벗겨지게 된다고 본다.³³⁾ 즉 비체는 체제와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전복적인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비체에 대한 크리스테바의 이러한 입장은 비체가 상징계 안에 언제든지 침범 가능한 존재로 남아서 경계를 흐리고, 상징 질서에 대한 왜곡 혹은 곡해를 통해 생산적인 담론을 재생산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비체는 부정적 비체화 과정을 긍정적인 비체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독해되기도 한다.³⁴⁾

비체 이론을 바탕으로 위의 시에서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 시들에 나타난 온갖 비체 이미지(“피고름 냉채”, “죽죽 찢어놓은 가슴살”, “미친 년”, “수챗구멍”, “기저귀”, “석회가루”등)는 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배제와 추방의 논리가 철저하게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구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1)의 시에서 남자 아이들의 혐오와 놀림은 성적 징후가 갈리기 시작한 성장기에서 소년들이 갖는 젠더 개념의 실재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보이고자 했던 시적 화자의 노력은 비체화에 동일시된 주체의 억압과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억압과 공포는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낯익은 세계이기 때문에 혐오와 배제를 당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 세계로부터 격리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비주체적인 낙인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나 “낯익은 사물들이 하나둘씩 잡아먹힐 때”, 즉 기존의 성적 관

33) 켈리 올리버, 『크리스테바 읽기』, 박재열 역, 시와 반시, 1997, 161쪽.

34)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한국장애인재단, 2018, 9~10쪽.

념으로부터 하나둘씩 벗어날 때, 시적 주체는 비로소 자신을 움아매었던 젠더 관념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한 격리시킨다. “석회가루를 잔뜩 묻힌 다디단 그대의 뺨이 직각으로 누워 나를 잡아당기는/ 또 다른 나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다 이제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한다 그리고 환호한다 *와우, 애들아/이것 좀 봐 드디어 내 푸른 제2의 자아가 내 몸 위에 달균 피자처럼 엉겨 붙고 있어*” 에서처럼, “나를 잡아당기는 또 다른 나의 얼굴”, 즉 기존의 젠더 관념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얼굴에 불과한 것이며, 그 얼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안도하고, 환호하며 “푸른 제2의 자아”가 몸속에 새롭게 탄생되고 있음을 자각한다는 이 언술 역시 기존의 젠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몸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새로운 자아 찾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의 제목인 ‘완전한 격리’는 첫째, 기존의 젠더 관념 안에서 비주체적으로 격리를 ‘당한다’는 점, 그러나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푸른 제 2의 자아’를 찾게 되면서 과거의 젠더 관념과 주체적으로 격리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고정된 성 관념으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통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상상적 비체 이미지는 성에 대한 기존 정체성을 동요시키고 교란시키면서 그 경계를 허무는 젠더 정치성을 드러낸다.

2) 의 시에서도 기존의 젠더 규범 허물기로서의 비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등어 부인의 자위 장면은 고등어를 의인화한 것과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자가 자위를 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이중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 자위는 주로 남성의 성 담론 범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위 장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기존의 성 담론 범주 안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다.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목격한 고등어 부인의 자위 행위는 겉으로 보아서는 혐오스러운 비체 그 자체이다(“피가 철철 흐르는 음부”, “곰팡 난 매트리스”, “빠격, 빠격 소리를 내며 꿈틀, 꿈틀거리는” 등). 하지만 그 이면의 이미지는 “대지의 손을 빌려 뜨

거운 혀와 같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그녀의 속속곳 속곳 속에 물살을 일으키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너 하고 싶지?”, “에이 하고 싶으면서 뭘”, “거짓말! 분명 넌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고등어 부인의 이죽거림과 “네?”, “아뇨”, “나는 아냐”, “이런 씨발 아니, 아니라잖아”로 방어하는 나의 대사가 겹치면서 자위에 대한 성 고정 관념의 경계가 동요된다.

급기야 “나는 하이힐을 벗어 그녀의 양쪽 뺨을 후려치고 말았”지만, 그 정도의 방어책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갑갑증이 찾아온다. 그래서 브래지어도, 팬티도, 콘택트렌즈와 치아교정기에 인조 속눈썹까지 벗어던지고, 흰 살점 덩어리마저도 체증이 일어 펄펄 끓는 솔단지 안으로 다이빙해 들어간다는 나의 신체 이미지는 1)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젠더 개념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의 지난함, 힘겨움,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푸른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과 2)의 시 모두 푸른 이미지의 신체(“제 2의 푸른 자아”, “고등어의 푸른 등줄기”)를 보여주는데, 이는 젠더 경계 허물기를 통해 그 허물기가 사실은 새로운 생성을 낳는다는 의미화를 불러온다. 김민정 시에 나타난 이같은 상상적 신체 이미지의 의미 작용은 여성이 현대 정치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분법적으로 성별화된 신체가 아닌 다양한 신체를 수용하는 정치-윤리적 입장과 맞물려 전개될 수 있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모이라 게이튼스의 젠더 정치성과 연계된다.³⁵⁾

2) 새로운 젠더 생성으로서의 미스핏 (misfit)이미지

비체를 통한 김민정의 젠더 경계 허물기는 새로운 젠더 생성과 맞물려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 주체성을 낳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2000년대 김민정의 시는 확장된 젠더 개념을 끌고 와서 기

35) 모이라 게이튼스, 앞의 책, 120쪽.

존 사회의 규범과 강렬하게 경합하는 과정을 체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젠더를 행동에 옮기는 일은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이거나 다채로운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재생산되며 경합을 벌이는 극적이고도 중요한 방식을 표현한 것³⁶⁾이라는 입장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는 김민정 시에서의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젠더적 현실과의 경합’을 이뤄나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까만 점박이 무늬 코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줌마, 느릿느릿 버스 안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어
 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줌마가 늘 아프다는 걸, 매일매
 일 멍든 부위만 골라 맞느라 까만 점박이 무늬가 하루하루
 큼지막혀져가고 있다는 걸, 혹시 아줌마가 원래 북극곰이
 었던 건 아닐까요

버스 안이 너무 더워요 아저씨, 제발 스티م 좀 꺼주세요
 네? 그랬지만 운전사 아저씨는 신경질을 부리며 라디오
 볼륨을 줄일 뿐이었어요. 삐질삐질 진땀을 쏟고 있는 아
 줌마의 까만 점박이무늬 코트 아래로 흰 연고 같은 젖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코트 깃을 굳세게
 여며보지만 순식간에 뒷좌석까지 퍼져 나가는 고소한 입
 김을 도로 불러다 껴안을 수는 없었어요.

(중략)

아빠들이 아줌마의 까만 점박이 무늬 코트를 훌렁훌렁
 벗겼어요. 아줌마의 가슴팍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젖병
 들이 통통 부은 젖꼭지로 눈물같은 젖을 흘리고 있었어
 요. 아침 안 먹고 오길 잘했지 뭐야, 아빠들은 제각각 젖병
 을 입에 물고 쪽쪽 빨았어요. 그러자 아줌마의 실루엣이
 우그러지고 찌그러지더니 에취에취 후춧가루처럼 폴폴

36) 양경언, 『안녕을 묻는 방식』, 창비, 2019, 89쪽.

날지 뭐예요. 아빠들은 뱀의 허물처럼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까만 점박이무늬 코트를 인천 앞바다에 출렁 띄워 보냈어요.

(중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 점박이 코트를 뒤집어 쓴 아줌마가 이번에는 텅 빈 젓병 속에 꿀꺽꿀꺽 바닷물을 통째로 채워나갔어요. 108m 월미산 봉우리가 아줌마의 젓병마다 푸른 젓꼭지로 뽕족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아빠들이 새근새근 잠든 아기들을 보러 요람으로 달려갔어요. 요람 위에는 하얀 털옷을 입고 푸른 젓병을 입에 문 아줌마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줌마가 까꿍, 하며 빨던 젓병을 내밀자 아빠들은 뒷걸음쳐 도망치느라 바빴어요. 아무래도 아빠들은 도리도리밖에 배운 게 없나 봐요.

「젓소 아줌마가 작아지는 비밀」 중에서

김민정 시에서의 새로운 젠더 생성 기제는 대체로 미스핏(misfit) 이미지를 통해 제시된다. 미스핏(misfit)이란 로즈마리 갈랜-톰슨Rosemarie Garland-Thomson이 유물론적 신체 장애 개념을 바탕으로 쓴 『보통이 아닌 몸』(손홍일 역, 그린비, 2015)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톰슨에 따르면 미스핏(misfit)은 장애와 장애를 둘러싼 환경의 물질적 배치로서의 상호 불일치에서 발생된다고 한다.³⁷⁾ 아울러 톰슨은 미스핏 개념이 장애의 특

37) 로즈마리 갈랜-톰슨이 언급한 미스핏(misfit)은 환경이 몸의 형태와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통역이 없는 방송 등이 불일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은 단지 사회적인 압력, 태도, 표현, 관습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배치에서도 그들의 축소, 주변화된 지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미스핏을 구성하는 장애 경험은 우리의 몸과 물리적인 현실 사이의 불일치와 간극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몸이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중재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몸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형상화되는 장애인들의 체화된 경

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취약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스핏 개념을 근거로 하여 장애는 인간에게 ‘재앙적’이라기보다는 ‘발생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의 생성력을 통해 ‘상호적 되어가기(interractive becoming)’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이때의 ‘되어가기(becoming)’란 “존재의 근본적인 단위를 단어나 사물, 주체와 타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얹혀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통해 생성되는 역동적인 현상들”이라고 주장한다.³⁸⁾ 톰슨의 이같은 미스핏 개념은 몸을 매개로 한 사회적인 관습, 권력관계, 태도 등의 역학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수행성으로서의 정치성과 연동 가능하다.

위의 시에 등장하는 까만 점박이 무늬 코트를 뒤집어 쓴 아줌마는 매일 멍든 부위만 골라 매를 맞는 여자다. 매일 맞는 몸이라서 하루하루 부풀어 오른 몸집은 원래 북극곰이 아니었을까하는 의문을 낳을 만큼 비대해진 신체로 그려진다. 북극곰처럼 거대해진 몸으로 탄 버스 안은 덥고 비좁지만, 어디에서도 배려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거대해진 몸으로 버스를 타면 옷 아래로 흰 연고 같은 것이 줄줄 흘러내려서 사람들의 눈총을 산다. 아빠들은 그런 아줌마의 손과 발을 부러뜨려다가 창밖으로 뱉다 던져버린다. 톰슨의 이론에 의하면 이 장면은 까만 점박이 무늬의 아줌마가 처한 몸의 상태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미스핏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아줌마의 손과 발을 부러뜨려다가 창밖으로 뱉다 던진다는가, 아줌마의 까만 점박이 무늬 코트를 훌렁훌렁 벗긴다는가 하는 아빠들 앞에서 “링에 묶인 채 오래오래 매달려 가는”, “통통 부은 젖꼭지로 눈물 같

힘은, 우리 몸이 기능하고 형성되는 방식 및 과정과 물질적 배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특정 유형의 몸에 맞게 유리하게 설계되고 구성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장애경험을 구성하는 미스핏 개념이 몸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구조의 작동, 양상, 모순 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한국장애인재단, 2018, 11쪽.)

38)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한국장애인재단, 2018, 11쪽.

은 젖을 흘리고 있는” 아줌마의 모습은 매 맞아 부어오른 몸(일종의 장애)과 물리적인 현실 사이의 불일치라는 미스핏(젠더적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창출되는 생성력을 높이 평가하는 톰슨의 입장에 의하면, “텅 빈 젖병 속에 꿀꺽 꿀꺽 바닷물을 통째로 채워 나가는”, “월미산 봉우리가 아줌마의 푸른 젖꼭지로 뽀족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하얀 털옷을 입고 젖병을 입에 문”아줌마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일종의 ‘되어가기(becoming)’의 생성력을 보여준다. 또한 아줌마가 잠든 아기들을 보러온 아빠들에게 까꿍,하며 빨던 젖병을 내밀자 뒤걸음쳐 도망치기 바쁜 아빠들의 모습을 향한 “아무래도 아빠들은 도리도리밖에 배운 게 없나 봐요.”라는 언술은 이 시의 앞부분에서 제시된 남성 젠더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남성 젠더성을 보여준다. 시의 앞부분에서 서술된 남성 젠더성이 혐오에 기반한 폭력인 것으로 전면화 되었다면, 아줌마의 입을 빌린 해학적 언술(“아무래도 아빠들은 도리도리밖에 배운 게 없나 봐요.”)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남성 젠더의 한계를 일종의 웃음으로 폭로하고 있다. 이 웃음은 “모든 것이 얹혀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들을 통해 생성되는 역동적인 현상들”이라는 ‘상호적 되어가기(interactive becoming)’로서의 새로운 젠더 생성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폭력적인 젠더 개념으로서의 미스핏 이미지를 해학적 웃음으로 교정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스핏 이미지에 대한 이같은 교정은 김민정 시에서의 환상 속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젠더적 현실과의 경합’을 이뤄나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한다. 미스핏의 부정성이 곧 변화를 지향하는 저항적 힘을 잉태한다는 톰슨의 이론을 참조한다면, 이 시에서의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새로운 젠더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젠더 정치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Ⅲ. 결론

김지하의 답시집 『오적』과 김민정의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는 한국 시문학사에서 이십여 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다른 시대적 상황과 다른 시어를 통해 탄생된 시집이다. ‘상상적 신체 이미지’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시의 정치성을 구현한 방법론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1980년대 민중문학의 대표 격인 김지하의 답시와 2000년대 미래파 시의 중심에 있었던 김민정의 시를 선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십 년 단위의 문학사적 지형도에 따라 명명했던 ‘시의 정치성’문제를 시대적 차원이 아니라 방법론 차원에서 논구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시의 정치성을 시대적으로 치우친 담론에 한계지우지 않고 현대시에 나타난 ‘다른 정치성’, ‘다양한 정치성’을 통해 시의 정치성(문학의 정치성) 논의의 구체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지하의 답시집에 나타난 현실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당대 민중들의 저항성을 견인해낸 집단적 정동 정치의 효과적 전략으로, 김민정의 시집에 드러나는 환상 속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기존의 젠더 관념에 대한 경계 허물기와 새로운 젠더 생성의 수행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치하는 방식을 위한 조건이 놓여 있다”³⁹⁾고 한 조르주 디디의 말처럼 이들 시에 나타난 상상적 신체 이미지는 ‘시의 정치’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지면의 한계와 제한된 비교로 인하여 ‘상상적 신체 이미지’를 통한 정치성의 동일성과 차이가 보다 풍요롭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

39)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 김홍기 역, 길, 2012.(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제42호, 266쪽 재인용)

를 지나나, 다른 사례로까지의 확장성을 지닌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시에서의 정치성 문제에 좀더 천착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지하, 『五賊』, 솔 출판사, 1993.
- _____,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92.
- 김민정,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열림원, 2005.
-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6.
- 박건용,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문학의 카니발화」, 『독어교육』31, 한국 독어독문학회, 2004, 279~305쪽.
- 류의근, 「몸의 정치」, 『철학연구』126, 대한철학회, 2013, 53~78쪽.
- 양경언, 『안녕을 묻는 방식』, 창비, 2019.
-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살림, 2006.
- 이소희, 「메트로 폰티와 푸코의 신체론 비교 -선형적 주체와 자연주의적 신체를 넘어서-」, 『철학연구』제37,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111~139쪽.
-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한국장애인재단, 2018, 2~45쪽.
- 이정우, 『세계철학사 3』, 길, 2021.
- 전미라, 「미하일 바흐친의 라블레론 다시 읽기」, 『한국노어노문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집』, 2015, 181~215쪽.
-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과 정치학(2)」, 『국제어문』, 76집, 국제어문학회, 2018, 283~311쪽.
- _____,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제42호, 265~306쪽.
- 하상복, 『이미지·상징·재현, 운동의 얼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B.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역, 비홍출판사, 2015.
- 모이라 게이트스, 『상상적 신체』, 조꽃씨 역, 도서출판b, 2021.
-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엘피, 2007.
- 캘리 올리버, 『크리스테바 읽기』, 박재열 역, 시와반시, 1997.
- 테리 이글턴, 『발터 벤야민, 또는 혁명적 비평을 향하여』, 김정아 역, 이앤비플러스, 2012.

The Politics of Imaginary Body Image in Contemporary Korean Poetry: Based on Kim Ji-ha's The Five Thieves and Kim Min-jung's The Flying Hedgehog Lady

Kim, Na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politicity in contemporary Korean poetry using the politicity of imaginary body images as a methodology. This purpose started from a problematic awareness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discourse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oetry, which has been regularly discussed, it is difficult to find concrete actual research cases to support the discourse. The 'imaginary body' mentioned in this study is based on Spinoza's concept of imaginary intelligence, which says that the accumulation of image action brings an experience branch that is distinguished from simple sensory perception, which can give a broader and deeper perception of thing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imagination', which refers to images, symbols, metaphors, and representations that help to compose various forms of subjectivity, and Foucault's concept of the body that the body is a product of the way culture organizes, regulates, and remodels itself can be said to be a fusion. Based on this imaginary body image concept, this study examined the politicity of body image in Kim Ji-ha's collection of poems, The Five Thieves and Kim Min-jung's Flying Hedgehog Lady. The imaginary body image in reality that appeared in Kim Ji-ha's collection of poems was revealed as an effective strategy of collective affective politics that led the people's resistance at the time. The imaginary body image in fantasy revealed in Kim Min-jung's poetry collection appeared as a direct and intense methodological strategy in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the existing concept of gender and presenting the performance of creating a new gender.

Keywords : Politics of poetry, imaginary body image, Kim Ji-ha, Kim Min-jung,
carnival body, grotesque body, abject, misfit, collective resistance, new
gender performative

투고일: 2022. 07. 20./ 심사일: 2022. 08. 20./ 심사완료일: 2022. 08. 20.